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<b>보도</b>	<b>2017.10.11(수) 15:00 이후</b>	<b>배포</b>	2017.10.11(수)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국제협력팀장 이진수(02-2100-2890)		<b>담 당 자</b>	이지현 사무관 (02-2100-2891)	

## 제 목 :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2017~2019) 확정

- 금융위원회는 2017.10.11(수)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2017~2019)」을 심의·확정
  -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
  -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.9.15(금)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\*의 심의를 거침
    - \* 위원장(금융위원장) 등 정부위원 5명, 유관기관 위원 6명, 민간위원 10명(총 21명)
- 이번 계획은 ‘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’를 목표로 ①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, ②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,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
  -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자본시장 국제화,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,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,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

## 대과제 1. 자본시장 국제화

- 자본시장의 조달기능을 국제화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매력도 증진
  - 아울러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,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 제공

## 대과제 2.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-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및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, 경쟁력 있는 실물 분야와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활성화
  - 또한,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해외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육성하고 금융부문의 4차 산업혁명 선도

## 대과제 3.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

-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준용비용을 경감하고, 선진화된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
  - 또한, 외국계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 및 애로사항 처리 체계 강화

## 대과제 4. 금융중심지 내실화

- 매력적인 경영·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국내집적 노력 지속 추진
  - 또한 금융연관산업 육성, 금융인력 양성, 서울·부산의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

□ 금융위원회는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 
내에 「금융중심지 활성화 TF」를 구성

- 유관기관 및 학계 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 등 민간전문가들의  
폭넓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들을  
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

□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 
사업기회와 투자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

-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 집적과 국내 금융회사의  
해외진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

※ 붙임 :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2017~2019) 요약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 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듣게 들었습니다 바로게 알려겠습니다
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